

##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 :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김은아<sup>†</sup>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3년 7월 3일 접수: 2023년 8월 21일 수정: 2023년 8월 21일 채택)

###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Eun-A Kim<sup>†</sup>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July 3, 2023; Revised August 21, 2023; Accepted August 21, 2023)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대학교 3곳의 간호대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 및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진로적응성은 강점인식( $r=.61, p<.001$ ) 및 결과기대( $r=.55,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강점인식은 결과기대( $r=.41,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과기대는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Z=3.85, p<.001$ ),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beta=.44, p<.001$ ),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beta=.33, p<.001$ ),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0%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강점을 인식하도록 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기대 형성을 위한 태도를 동시에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진로적응성, 결과기대, 강점인식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adapt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84 nursing students in three Universities in G City, J Province. Data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lso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aron and Kenny method and Sobel test.. Career adaptabi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ngths knowledge( $r=.61, p<.001$ ), outcome expectation( $r=.55, p<.001$ ), and strengths knowled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utcome expectation( $r=.41, p<.001$ ). The outcome expectation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strengths knowledge and the career adaptability( $Z=3.85,$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kea0815@naver.com)

$p < .001$ ). The positive the strengths knowledge( $\beta = .44$ ,  $p < .001$ ), the higher the outcome expectation( $\beta = .33$ ,  $p < .001$ ), the higher the career adaptability level, and the explanatory power to explain career adaptability was 50%.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cognize strengths with positive thinking about individuals, but also to improve attitudes to form desirable outcome expectations at the same time.

*Key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Outcome Expectation, Strengths Knowledg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상황으로 인해 간호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7명에 비해 8.4명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1]. 이로인한 정부의 간호학과 정원확대 정책과 동시에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의 강점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대한 깊은 숙려 없이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2]. 대부분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간호학과 특성상 학생들은 졸업 후 80% 이상 병원으로 연결되어 전공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타 전공 학생들과 달리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과 준비하는 시간은 부족하다 [3]. 이는 날로 치열해지는 취업경쟁률을 뚫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이유가 된다 [4]. 이에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직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에게도 진로적응에 대한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

대학시기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통해 직업 세계로 입문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취업 시장 안에서 이에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의 적응 능력과 관련된 개념인 진로적응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5]. 진로적응성이란 자신의 진로경험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진로행동을 만드는 등 자신에게 적합한 일에 자신을 맞추는 행동, 역량, 태도로 구성된 개념이다 [6]. 진로적응성은 한 개인이 전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으로,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결정과 직업세계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라 할 수 있다 [7]. 한 개인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도움보다는 개인 내적인 힘을 키워줌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환경보다는 개인의 변인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8].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로적응성의 예측요인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특질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개념인 강점인식과 [9], 개인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신념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결과기대라는 [10] 개인의 변인에 초점을 두고 확인하고자 한다.

진로발달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아실현 가능성의 향상 뿐 아니라 학업 또는 업무에서도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할 수 있다 [11]. 특히 아직 일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에,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어떤 일에 몰입하고 보람을 느끼는지를 인식하게 되면, 보다 주체적이고 확신있는 성숙한 진로 태도를 지닐 수 있다 [12]. 또한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기대는 개인의 신념을 지속시킬 수 있어 [10], 진로목표 설정과 목표 추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3]. 따라서 한 개인이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를 갖게 된다면 진로를 목표로 한 행동을 지속하게 되어,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기존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한 바,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14,15] 및 진로성숙에 [12] 영향을 미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16,17] 및 진로준비행동에 [1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과기대는 일반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을[5,19] 매개하여 정적영향을 주었고, 진로결과기대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을[20], 그리고 진로탐색의도와 진로준비행동을[21] 매개하여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이 높아질 때 진로적응성과의 사이에서 결과기대의 개입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이 결과기대와 진로적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통합적이며, 다차원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첫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진로적응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3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전학년 학생으로서 연구자가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표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최소 표본 크기는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예측변수 10개(인구사회학적 특성 7개, 연구변인 3개)로 설정하였을 때, 172명으로 예측되었다. 탈락률과 회수를 및 학년과 학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총 288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8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질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개념으로, Govindji와 Linley[9]가 개발한 도구를 Kim과 Lee[1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총 56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Govindji와 Linley [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Kim과 Lee[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이었다.

#### 2.2.2.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Betz와 Voyten [22]이 개발한 도구를 Yang[23]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45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결과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학문적 결과기대와 진로 결과기대 두 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학문적 결과기대는 미래의 진로선택과 성공에 대한 교육적 수행에 대한 믿음이며, 진로 결과기대는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 유용한가에 대한 믿음이다 [23]. 본 연구자는 진로결정에서의 결과기대를 교육 및 진로의 두 영역 모두에서, 장기간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본 Yang의 연구에서와[23] 동일한 맥락으로써, 하위요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Yang의 연구[23]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으로 Yang의 연구 [23]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이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내용과 졸업 후 취업 분야와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기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과기대를 측정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 2.2.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진로를 예측하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Maggiori, Rossier와 Savickas [24]이 개발한 단축형 진로적응성 척도인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CAAS-SF)를

Kim과 Ko[25]가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진로적응성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1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60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 진로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관심, 통제, 호기심 및 자신감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Maggiori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2.3.1.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고, 각 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학과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연구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밀봉 봉투에 봉한 후 수거하였다. 연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중간이라도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 2.3.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의 정

도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넷째,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2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Sobel test[27]로 검증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 정도

대상자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강점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5.03 \pm 1.04$ 점, 결과기대는 5점 만점에 평균  $4.13 \pm .56$ 점, 진로적응성은 5점 만점에  $3.98 \pm .58$ 점이었다(Table 1). 강점인식은 평균 5.0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16]에서 4.66점, Roh의 연구[17]에서 4.68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의 연구[28]의 합계점수 38.47점을 평균으로 보면 4.81점으로, 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써 본 연구대상자는 스스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기대는 평균 4.1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연구[20]의 3.92점, Kim의 연구[21]의 3.80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학과의 특성상 대학에서 배운 학업 내용이 대부분 간호사라는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 수준이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적응성은 평균 3.9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29]의 3.71점, Park의 연구[30]의 4.02점과 유사하며, 대상자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84)

Variables	Range	Mean $\pm$ SD
Strengths knowledge	1~7	$5.03 \pm 1.04$
Outcome expectation	1~5	$4.13 \pm .56$
Career adaptability	1~5	$3.98 \pm .58$

대처능력이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형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년, 성적, 경제상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은 3학년이 1, 2, 4학년에 비해 진로적응성의 수준이 높았으며( $F=7.96, p<.001$ ), 성적은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중위권이 하위권보다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F=17.27, p<.001$ ).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하인 경우에 비해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았으며( $F=4.76, p=.009$ ),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중간이나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F=14.02, p<.001$ ) (Table 2).

진로적응성 수준은 3학년이 1, 2, 4학년보다

높았고,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중·하위권에 비해 높은 진로적응성 수준을 보인 Park[30]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하여, 4학년 상반기에는 병원의 취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사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병원 선발기 이전에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시점이 하반기인 이유로 4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더 높은 진로적응성 수준을 보인 것으로 유추되나, 선행연구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하일 때 보다,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중간 또는 낮을 때 보다 진로적응

Table 2. Degree of Career Adap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4)

Variables	Categories	n(%)	Career adaptability	
			Mean ± SD	t/F (p) (Scheffe)
Gender	Male	232(81.7)	3.96 ± .57	1.23(.220)
	Female	52(18.3)	4.07 ± .60	
Age	≤ 23	240(84.5)	3.96 ± .59	-1.54(.126)
	≥ 24	44(15.5)	4.11 ± .53	
Grade	1st <sup>a</sup>	46(16.2)	3.80 ± .63	7.96 (<.001) c>a,b,d
	2nd <sup>b</sup>	44(15.5)	3.81 ± .63	
	3rd <sup>c</sup>	96(33.8)	4.20 ± .55	
	4th <sup>d</sup>	98(34.5)	3.93 ± .49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40(14.1)	4.36 ± .50	17.27 (<.001) a>b>c
	Medium <sup>b</sup>	206(72.5)	3.97 ± .54	
	Low <sup>c</sup>	38(13.4)	3.63 ± .62	
Economic state	High <sup>a</sup>	15(5.3)	4.28 ± .61	4.76 (.009) a>c
	Medium <sup>b</sup>	248(87.3)	3.99 ± .57	
	Low <sup>c</sup>	21(7.4)	3.69 ± .60	
Residence type	With family	173(60.9)	4.03 ± .58	1.66 (.099)
	Apart from family	111(39.1)	3.91 ± .5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sup>a</sup>	86(30.3)	4.24 ± .54	14.02 (<.001) a>b,c
	Moderate <sup>b</sup>	188(66.2)	3.88 ± .55	
	Dissatisfaction <sup>c</sup>	10(3.5)	3.65 ± .69	

성 수준이 높아,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진로발달의 수준이 높은 결과들과 일치한다[16,31], 전공과 진로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학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상태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는 그간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관계

진로적응성은 강점인식( $r=.61, p<.001$ ) 및 결과기대( $r=.55,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강점인식은 결과기대( $r=.41,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12,14,15]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5,19]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강점인식과 결과기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핀 기존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교하기엔 한계가 따르나 결과기대가 높은 대상자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높은 학업수준을 유지하면 더 나은 진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12],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결과기대간 상관관계 수준( $r=.41$ )이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바 향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 성적,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도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26]의 회귀분석에 근거한 매개효과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Sobel test[27]도 사용하였다. 우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에서는 .43~.91으로 .10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2.3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가 1.96로 2.0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1단계에서 강점인식은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점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결과기대 점수가 높아졌다( $\beta=.27, p<.001$ ). 강점인식이 결과기대를 설명하는 설명력( $R^2$ )은 28%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2단계에서 강점인식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점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졌다( $\beta=.53, p<.001$ ).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설명력( $R^2$ )은 43.0%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점인식( $\beta=.44, p<.001$ )과 결과기대( $\beta=.33, p<.001$ ) 모두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여, 결과기대는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점인식 점수와( $\beta=.44, p<.001$ ), 결과기대 점수가( $\beta=.33, p<.001$ )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설명력( $R^2$ )은 50%이었다. 또한 Sobel test[37] 검증결과에서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Z=3.85, p<.001$ ) <Table 4> <Fig. 1>. 1단계에서 강점인식이 결과기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성격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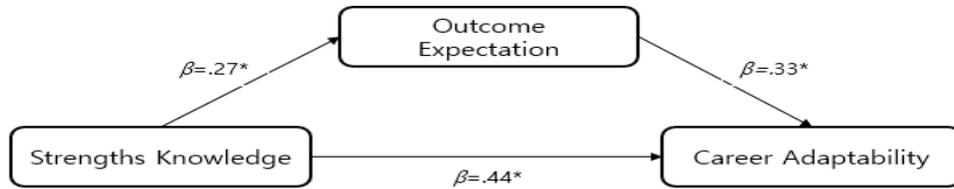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84)

Variables	Strengths knowledge r(p)	Outcome expectation r(p)	Career adaptability r(p)
Strengths knowledge	1		
Outcome expectation	.41(<.001)	1	
Career adaptability	.61(<.001)	.55(<.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Adaptability (N=284)

Variables		B	SE	$\beta$	t(p)	R <sup>2</sup>	Adj.R <sup>2</sup>	F(p)
Step 1	Strengths knowledge → Outcome expectation	.14	.03	.27	4.68 ( $<.001$ )	.28	.25	10.43 ( $<.001$ )
Step 2	Strengths knowledge → Career adaptability	.29	.03	.53	10.33 ( $<.001$ )	.43	.41	20.34 ( $<.001$ )
Step 3	Strengths knowledge → Career adaptability	.24	.03	.44	8.90 ( $<.001$ )	.50	.48	25.17 ( $<.001$ )
	Outcome expectation → Career adaptability	.34	.05	.33	6.52 ( $<.001$ )			



\* $p<.001$

Fig 1.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Adaptability.

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2]와 어느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강점인식과 결과기대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 결과기대에 대한 강점인식의 상당한 영향력( $\beta=.27$ ) 및 설명력(28%)를 규명하게 되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험에서 보람을 느끼게 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미래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결과기대에도 정적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강점인식과 결과기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를 기대한다.

2단계에서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강점인식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2,14,15]와 일치하였다. 그간 강점인식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 연구는 주로 일반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등에 영향을 주었던 연구[16,17,18]에서도 강점인식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규명되었다. 따라서 우선 간호대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준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적응성을 증진한 교육프로그램 등[33]을 간호대학생에게도 활용한다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3단계에서 결과기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영향을 주며,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때 설명력은 50%이었다. 이는 결과기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을 매개하여 정적영향을 주었던 연구결과[5,19]와 부분 일치하며, 진로결과기대가 매개변수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정적영향을 미

친 연구결과[20,21]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강점인식 뿐 아니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지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강점인식 뿐 아니라 동시에 결과기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수행이 진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로결정 과제와 진로결정이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여 결과기대가 높아지면[13], 진로성숙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으므로, 우선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결과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간호학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결과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때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적응성 함양의 다차원적인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는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과기대가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을 부분매개하므로 강점인식 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결과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개입을 통해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개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근간으로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5], 특히 본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적응성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중간 이하의 성적 및 중간 이하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인 집단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진로적응성 향상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결과기대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동시에 결과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타 보건의계열과 비교 및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진행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ECD Health Statistics 202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
2. E. A. Kim,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4 pp. 499-506, (2022).
3. S. H. Yo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2019).
4. H. K. Kim, "The Effect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by the Perception of Hospital Nurse's Workplace Bullying",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4 pp. 1045-1055, (2021).
5. J. S.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2017).
6. M. L. Savickas,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5).
7. K. Y. Jang, B. W. Kim,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2 pp. 539-558, (2011).
8. J. A.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Strength, Self-regulatory 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Han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2014).
9. R. Govindji, P. A. Linley,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No.2 pp. 143-153, (2007).
  10. R. W. Lent, H. Sheu,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cross Cultures: Empirical Status*. In J. G. Ponterotto, J. M. Casas, L. A. Suzuki, C. M. Alexander(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3rd ed), pp. 691-701, Thousand Oaks, CA: Sage, (2010).
  11. H. S. Park, B. S. Kwon,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1 pp. 48-56, (2006).
  12.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13. J. A. Lee, W. Y. Choi.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to Career Aspir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4, No.4 pp. 95-109, (2011).
  14. N. G. Cho, J. H. Kwon, M. Y. Jung.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3 pp. 1-27, (2016).
  15. H. S. You. “The Effects of Strengths Use, Occupational Engage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n Female Tourism Major Students”,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rch*, Vol.16, No.4 pp. 195-211, (2016).
  16. K. H. Kim,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3 pp. 363-370, (2022).
  17. S. Y. Roh,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4 pp. 479-487, (2022).
  18. S. Y. Roh,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6 pp. 883-891, (2022).
  19. Y. H. Jang, “The Medit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Adaptability in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Result Expect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1 pp. 451-469, (2017).
  20. Y. J. Ju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6 pp. 735-748, (2021).
  21. K. H.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8).
  22. N. E. Betz, N. K. Vu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 179-189, (1997).
  23. N. M. Yang, “*Validation of Social Cognitive Career Choice Mod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24. C. Maggiori, J. Rossier, M. L. Savickas,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 (CAAS-S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25, No.2 pp. 312-325, (2017).
25. M. S. Kim, E. Y. Ko, "Career Adapt-Abilities Scale Short-Form Validation Study",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6, No.4 pp. 261-281, (2020).
2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27.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 290-312, (1982).
28. Y.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Us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2018).
29. Y. M. Kim,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 467-480, (2017).
30. H. S. Park,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on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6, No.4 pp. 420-428, (2021).
31. J. S. Park, H. K. Son, S. H. Kwon, K. I. Jung,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12, October, pp. 20-29, (2019).
32. Y. D. Jung (2014). "Relation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do, (2014).
33. Y. M. Son, "The Effect of Meaning Making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 191-212, (2016).